고창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효과 있네'

공해 차량 운행 제한·진공청소차 수시 운영 등 정책 시행
10월말 대기 측정 초미세먼지농도 시·군 중 최저치 기록

진공청소차 수시 운영 등 고창군이 추진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이 군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봤다.

군은 지난 10월 말 대기 측정망을 통해 확인한 고창지역 초미세먼지농도는(PM-2.5) 18㎍/㎥, 미세먼지(PM-10) 38㎍/㎥로 전북 지역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은 이 같은 성과가 한 해 동안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해 차량 운행제한과 노후경유차 270여대 조기 폐차지원사업(사업비 3억2100만원)을 추진했다.

또 전기자동차 10대(1억8000만원) 구매지원,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5대를 선정해 LPG 전환사업도 진행했다.

도로변 먼지 제거를 위해 진공청소차를 수시로 운영하고,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건물신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레미콘공장 등) 지도관리도 강화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회관에 운영 중인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1개소 더 추가해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미세먼지 알리미 시스템도 추가 도입해 관내 대기 환경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익산 새마을지도자 대회 성료 '2018 익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지난 11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시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29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익산시 제공〉

여수 남산공원 조성 방법 시민의견 듣는다

20일부터 3주간 '여론조사' …"근린공원"·"관광형 공원" 의견 팽팽

여수시는 남산공원 조성 방법을 묻는 시민여론조사를 오는 20일부터 3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의견이 팽팽한 남산공원을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할지, 관광형 공원으로 조성할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수 예암산에 조성하는 남산공원은 원도심권과 함께 돌산공원, 장군도, 경도 등 여수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로 꼽힌다.

지리적 조건이 우수한 만큼 타워 등을 조성해 관광 시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미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여수시문화원에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을 초청해 남산공원 조성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현재 남산공원은 공원진입로 427m와 주차장 100면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로 약 2만5000㎡ 면적의 정상부 공원조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강진군-강진교통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 협약 체결

강진군은 14일 강진군청에서 강진교통과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1000원으로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강진 지역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탈 수 있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500원까지 부담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순창군, '스포츠마케팅어워드' 지방자치단체상 수상

순창군이 '제4회 스포츠마케팅어워드 2018'의 지방자치단체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스포츠산업과 마케팅 제고를 위해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 주관하는 스포츠마케팅어워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

순창군은 올해 전국유소년야구대회와 전국체전을 포함해 46개 전국 대회를 치르고, 11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 다용도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 더 많은 전국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정읍시, '전북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선정

정읍시가 전북도의 관광정책사업인 '2018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에 선정돼 성과금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대표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해마다 시·군지역 공모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평가단은 관광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을 지난 2014년 11월 정읍 대표 관광지로 선정,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2억5000만원(국비 8억원, 도비 57억원, 시비37억5000만원)이 투입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나선다.

시는 내년에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8000만원을 들여 어드벤처 복합놀이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무녀도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전북도, 430억원 들여 2021년까지 조성 계획

전북도가 실내서 다양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군산 무녀도에 만든다.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15억원씩 430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복합단지는 군산 옥도면 무녀도의 옛 정수장 부지 5만4000㎡에 들어선다.

실내에서 카누, 카약, 요트, 수상 오토바이 등을 배우고 즐기는 대형 해양레저체험 시설과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이 계류하는 항구인 마리나를 갖춘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해양 레저를 체험하는 테마파크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 해양 숙박시설, 캠핑장도 들어선다.

실내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4계절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시설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전북도는 복합단지를 인근의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비응해수욕장 등과 묶어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군산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공모
순창 이조전통식품 등 3개 제조업체 선정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9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에 도내 3개 제조업체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 1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업체당 총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해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주류 제품 생산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 가운데 순창 이조전통식품은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재래식 함초된장'을 개발하고, 담예찬은 '종균을 활용한 재래식 전통메주와 된장의 품질 안정화', 남원 지리산두류실은 종균을 활용한 '행복한 하루 발효선식'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에 종균을 보급하는 기관으로는 순창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정돼 장류와 식초류 품목에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에 보급하고, 상품화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용균주 확보 보급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해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락농정의 스마트농생명산업 중 발효미생물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문의. 010-6834-7400